

TECHCROSS NEWS

www.techcross.com

Providing Right Solutions For Your Ships

2016 September Edition. Issue. 07

Copyright@TECHCROSS all rights reserved.

News 01.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선박평형수 관리법 비준

2016년 9월 8일 핀란드가 선박평형수 관리법(BWM Convention,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에 비준하였다. 이로써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비준한 국가는 총 52개국, 선복량은 35.1441%를 기록하며 법안 발효 기준인 선복량 35%의 30개국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은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법안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표류되다 이번 핀란드의 비준으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12개월 뒤인 2017년 9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이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공식 발표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아직 불확실한 미국 USCG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이유로 불안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테크크로스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이 비준될 상황을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기에 불안보다 기대감이 더 크다.

2006년 세계 최초로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한 기본승인을 획득한 ㈜테크크로스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오랜 기간 누적된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업계의 1인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후 환경 규제를 사업 창출의 기회로 삼은 ㈜테크크로스의 활약이 소개되면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된 ㈜테크크로스는, 2013년 정부로부터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사업을 위하여 12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제품은 기존의 직접식 전기분해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는 또 다르게 간접식 전기분해 기술, 약제 혼합 기술, 복합 살균 기술 등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테크크로스가 유일무이하다. 이것은 오직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주요 사업군으로 진행하며 우수한 엔지니어를 전체 직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테크크로스이기 가능한 일이며 이를 통해 업계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우뚝 서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테크크로스는 부산 녹산산업단지 내 13,000평 부지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여 생산력을 확장시켰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생산공장으로서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테크크로스의 부산공장은 연간 1,000척 이상의 선박을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력도 향상시켜 가격 경쟁력까지 올렸다.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작하여 이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된 ㈜테크크로스는 이제 강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되고자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Event Schedule

외부 행사

- 9월 27일(화) ~ 28일(수)
: Prevention First 2016 / 미국 캘리포니아
- 9월 27일(화) ~ 29일(목)
: BWMTech North America / 미국 마이애미
- 12월 5일(월) ~ 6일(화)
: 12th BWMTech Conference / 영국 런던

내부 행사

- 12월 9일(금)
: 워크샵
- 12월 28일(수)
: 종무식

News 02. (주)테크로스 MR Tanker Solution, 특허 등재

지난 8월 말 (주)테크로스만의 고유한 설치 솔루션이 특허청에 등록되었다. 해당 특허는 '잠수형 펌프가 설치된 선박의 기관실 내 선박평형수 처리부를 갖는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설치방법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잠수형 펌프가 설치된 선박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하게 될 경우 제약사항이 많아 갑판 위에 별도의 방폭 공간을 설치하여 제품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별도의 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방폭 공간이 외부에 있어 극한의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허 등록된 테크로스의 설치 솔루션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다른 선박에서처럼 기관실에 설치하고 추가로 밸러스트 펌프를 1대 (혹은 2대) 설치하여, 밸러스팅 시에는 추가로 설치한 펌프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디밸러스팅 시에는 기존의 잠수형 펌프를 사용하여 선박평형수를 배관을 통해 갑판으로 올려 보낸 뒤에 배출되도록 한다. 이 방법은 별도의 방폭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설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은 주로 잠수형 펌프가 설치된 MR Tanker(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STX 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에서 약 10척 이상이 계약, 향후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본 특허를 진행했던 테크로스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며 최적의 설치 솔루션을 연구한 결과가 특허로 등록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설치 솔루션을 연구하여 어떤 고객들의 요구에도 100%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News 03. (주)테크로스 158K Suezmax COT 2척 수주



지난 8월, (주)테크로스가 터키 선주로부터 2척의 158K Suezmax COT(Crude Oil Tanker)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ECS 설치를 통보 받았다. 해당 선박은 한국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며, 선박의 밸러스트 펌프 용량은 2000m³/h 2세트, 250m³/h 1세트이다.

이 계약을 통해 (주)테크로스는 Ex-ECS 2000B 2세트와 ECS 300B 1세트를 납품하게 되었으며 예상 납기일은 내년 2월 말로 보고 있다. 본 호선은 2015년 그리스 선주가 현대삼호중공업에 발주한 158K Tanker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해당 호선에 테크로스의 ECS가 성공적으로 설치된 실적이 있어 이번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테크로스의 ECS는 전기분해방식을 활용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로,

필터가 필요 없어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한 데다가 전기소모량 또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을 앞세워 테크로스는 어려운 조선시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홍콩 선주의 300K VLCC 2척, 6월에는 현대미포조선에 발주된 PCTC 4척 및 50K Tanker 2척에 ECS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특히 50K Tanker의 경우 테크로스가 자체 개발하여 엔진룸 솔루션을 적용하였는데, 8월 말 특허 등록을 마친 엔진룸 솔루션은 설치도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여러 조선소에서 주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주)테크로스는 1,000척이 넘는 수주고와 함께 820여 척에 제품을 선박에 납품&설치 완료하였다.

News 04. (주)테크크로스, 말레이시아 MMHE 수리조선소와 MOU 체결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대표주자 (주)테크크로스과 말레이시아의 수리조선소 거점인 MMHE가 지난 9월 7일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에 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MMHE는 지난 40여년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생산성과 서비스 제공을 발전시켜온 말레이시아 MHB(Malaysia Marine and Heavy Engineering Holdings Berhad)가 2012년 조선소 규모와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증축한 조선소이다. 그들은 2004년에 제정된 선박평형수 관리법이 비준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업체를 찾던 중, (주)테크크로스과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MOU는 양사가 기존선 시장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합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테크크로스는 과거 싱가포르와 두바이, 인도, 스페인에 위치한 수리조선소와도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도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서 전세계 고객들의 설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고객들의 문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확장하고 있다.

News 05. 한국선급 BWMS 시험설비 준공 기념식 가져

지난 7월 2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에서 한국선급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험을 위한 육상설비 증설에 따른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선급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육상시험설비를 2기 증설했고, 기존에 1기의 설비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1기를 추가 증설하여 총 4기의 육상 시험설비가 구축되었다. 이 규모는 세계 최대 처리용량의 시험설비이기도 하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을 비롯하여 업계 관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 국내 선박평



형수 처리장치 대표 업체인 (주)테크크로스의 박규원 대표이사과 한국선박평형수협회 김성태 회장(주)테크크로스 전무이사)도 참석하여 축사와 테이프커팅식을 거행하였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주재한 선박평형수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향후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발효와 USCG 형식승인 취득에 대한 국가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준공식이 관련 업계들에게 유독 반가운 이유는 바로 시험설비가 증설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와는 별도로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에게 요구되는 USCG 형식승인은 아직까지 취득한 업체가 없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험기관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장기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에 한국선급에서 육상시험설비를 증설함으로써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결해줄 것이라며 국내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업체들은 반가워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도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업체들이 대거 몰려있어 이번 준공식에 쏟아진 관심과 집중은 더 뜨거웠다.

(주)테크크로스 역시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승인 취득을 위해 제품 시험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날 현장에서도 테크크로스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육상시험을 받고 있었다. 현재 테크크로스의 제품은 USCG 형식승인을 위해 DNV와 KOMERI로 나눠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선급은 지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USCG의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은 물론 승인 업무도 도맡아 함으로써 세계에서 두터운 기술력과 품질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선급은 다음 달까지 이번에 증설한 시설에 대한 승인을 USCG에게 받은 뒤, 다가오는 9월부터 본격 가용할 예정이다.